

이웃종교 RELIGION

‘평화통일 기원’ 종교인 앞장서자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인천 종교인 모임서 합동 기도회

인천지역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족화해 인천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선일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오송호 신부), 개신교(김성복 목사, 원불교(황덕규 교무) 등 각 종교인들로 구성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인천 종교인 모임’ 회원 10여 명이 3월 9일 인천 월미도 앞 바다 유람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동기도회를 개최했다.

김성복 공동의장(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은 “현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길이 폭넓고, 북한이 민감해 하는 대북전달 실행방향이 방치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흡수통일’이 주장되면서 남북 사이에는 대결의 기



민족화해인천포럼 상임대표 선일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이 3월 9일 인천에서 합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운을 넘어선 적대적 분위기가 가득했다”며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적대행동도 당장 중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북을 상대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민족 화해와 단합의 길을 밝힌 6·15공동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대

화추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정부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종교 대표인들은 남북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나는 기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故 김 추기경 말씀 담은 스티커 배포

가톨릭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김 추기경의 말씀을 담은 현수막을 각 성당과 기관에 배포한 데 이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름 9cm의 빨간색 스티커 중앙에는 김 추기경이 그린 자화상 ‘바보야’를 새겼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문구는 추기경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꿨다.

스티커는 차량 뒤편 유리, 가정과 사무실, 점포의 출입문 등 다양한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뒷면에는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

항(1.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 각 성당과 기관을 “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5.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과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마음한품운동본부’ 연락처를 담았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남긴 뜻을 한 개인과 종교를 떠나 우리사회 전반의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김수환’ ‘천주교’ 등 특정 단어를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샘물중학교 개교

기독교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 샘물중학교(교장 신병준)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2월 23일 개교했다.

샘물교회(박은조 목사)에서 설립한 샘물중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비전 아래 설립됐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 21개 교회가 연합해 세운 이 학교는 김병삼(만나교회), 김양재(우리들교회), 안병만(수지열방교회) 등의 목회자가 이사로 참여하고 이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후원할 계획이다.

박은조牧사는 “7년 전 샘물유치원을 설립하고, 4년 전 샘물초등학교를 개교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나는 기자

14년째 묵묵히 학인스님·어린이 수발

금장사, 사랑의 장학금 전달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이미 옛말이 돼버렸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말처럼 사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요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며 14년 동안 학인스님과 어린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흥은동 금장사(주지 본각)는 3월 8일 일요 정기법회에 앞서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는 승가대 학인스님 4명과 금장사·금화사 학생들, ‘보리방과후교실’ 어린이 등 총 23명이 장학금 1100만원을 받았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전달식에서 “보리방과후교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참

여를 당부 드린다”며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 대해 설명했다.

화엄장학회는 1994년 본각 스님이 불교방송에서 <화엄경> ‘십지품’을 강의할 때 청취자들이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모아 미래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오향장학금은 2004년 자비전행화 수행상당 프로그램을 통해 본각 스님을 알게 된 권오향 보살이 평생 모은 1억원을 장학금에 보태달라고 스님에게 기탁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탄생한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은 현재 비구니연구소 연구비, 대학원 스님, 금장사와 금화사 추천 장학생들, 금장사 부설 보리방과후교실과 보리어린이법회, 금화사 종교등부 어린이법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9회의 전달식을 열었고 300여 학인과 어린이들에게 1억7000여



금장사(주지 본각·사진 가운데)는 3월 8일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만원 전달해왔다.

2006년 10월 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을 연 보리방과후교실은 현재 40명 정원을 다 채운 상태다. 3월 9일부터는 청소년 반(15명 정원)을 개설해 등교대, 이화여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1:1 개인지도도 실시했다.

보리방과후교실을 총괄하는 효욱 스님은 “흥은동 주된 대부분은 생계

형 맞벌이를 하고 있어 금장사가 공부방을 마련한 이후로 지역의 단비가 됐다”며 “하지만 청소년 반을 개설하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 현재의 재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02)395-0042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종교계 장기기증 연합캠페인

KONOS 주최로 명동 일대서 홍보

2월 16일 선종한 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 소식으로 장기기증 신청자가 폭증한 것과 때를 같이 해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범종교적인 장기기증 홍보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KONOS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한마음한품운동본부(김용태 신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목사, 안구기증운동협회(이사장 김범철) 등 불교·개신교·가톨릭 대표 장기기증 유관단체와 3월 7일 명동에서 장기기증 홍보를 위한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 기관들은 명동성당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등록희망자 접수를 위해 상담부스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면 스님은 “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장기기증 유관기관은 3월 7일 명동에서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 등록 신청자 김모(여·45)씨는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도 망설여졌지만 김 추기경의 기증 소식을 듣고 결심을 냈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미리놓은 숙제를 한 것 같아 출가 분한 기분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명동 일대에서 접수된 장기기증 등록자 수는 410명으로 집계됐다.

이나는 기자

의지나눔 학교

조계종복지재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통해 인생의 좌표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쉐어윌(Sharewill) 운동본부(대표이사 지관)가 진행하는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젝트 ‘의지나눔 쉐어윌’이 ‘의지나눔 학교’라는 명칭으로 1기생을 모집, 3월 14일 풍곡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1기로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 중 학생 100명은 3월 14일~8월 9일 5개월 간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 람들을 만나고, 여름캠프와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9차례 이뤄진 쉐어윌 프로그램은 의사, 교수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브랜드마케터, 가수, 자동차부품설계사, 쇼빙물운영자, 게임개발자, 요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나는 기자

I♥생애 아카데미

일산노인복지관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자는 ‘월드 임’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보다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은 아름다운 삶의 완성 프로젝트 ‘I♥생애 아카데미’를 3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5명의 참여자들이 총 3개월 과정에 참여해 자서전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고,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노인 스님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두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1)919-8677

이나는 기자

대한불교 자비원종 입종안내

- 종 정 신법성(성공)
- 총 무 원 장 윤화봉(성산)
- 경남총무원장 김현공(영암)
- 경북총무원장 이지명(호산)

※ 본 종단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며(각사암)의 재산권은 총무원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요청시 팩스 및 우편)
- ◆주민등록등본 1통
- ◆타종단 승려증 및 사본 1통
- ◆여권용사진 4장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1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부여

문의처

·경남 창원군 계성면 사리 113번지 대한불교 자비원종 총본산 응우사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송진리 산 121-1 대한불교 자비원종 총무원 석산사  
TEL 055)351-0562 / FAX 055)353-8109 / 010-8331-0320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 관음사 행자(예비스님)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21일(화) 21일간
- ◇대구근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 ◇참선, 기도, 교리습득 = 수행자의 모든 것
- ◇齋주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